



# BeFM 부산영어방송

GLOBAL TALK CONCERT

THE INVINCIBLE

# YOUTH

---

## 강연일정

- Lecture **1** 2014년 9월 12일 (금) 2시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 Lecture **2** 2014년 9월 18일 (목) 2시 동아대학교 김관음행홀
- Lecture **3** 2014년 9월 26일 (금) 2시 부경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Lecture **4** 2014년 10월 2일 (목) 2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 대강당

부 산 에 서

세 계 를

만 나 다



# BeFM 부산영어방송

GLOBAL TALK CONCERT

## THE INVINCIBLE YOUTH



### FM 90.5 부산영어방송은

2009년 개국 이래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속에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1일 24시간 방송을 통해 뉴스를 포함한 시사·정보프로그램, 영화, 연예를 다룬 오락 프로그램, 중·고생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부산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부산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8일 가을 개편을 시작으로 부산 최초 중국어 방송을 시작하여 더욱 더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월 1회 영화의 전당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통한 부산 시민 영어배우기 프로그램 '오픈시네마', 매월 초등학생 어린이 아나운서 선발, 중·고생들의 영어 토론 기술향상을 위한 부산 청소년 영어토론대회 등 지역민의 글로벌 능력 향상을 위한 공익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BeFM 부산영어방송  
GLOBAL TALK CONCERT  
THE INVINCIBLE  
YOUTH

기획의도

"Change the world with small actions!"

작은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연사들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글로벌한 인재를 꿈꾸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연사들의 강연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도전, 신념, 나눔, 열정의 롤 모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지금 시작합니다.

강연일정

BeFM 부산영어방송  
GLOBAL TALK CONCERT  
THE INVINCIBLE  
YOUTH

Lecture  
1

2014년 9월 12일 (금) 2시 |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Mr. Thomas HWANG(황용택) | Mr. Leo MENDOZA(리오 멘도자)

Lecture  
2

2014년 9월 18일 (목) 2시 | 동아대학교 김관음행홀  
Mr. Herve STUDER(에흐베 스투델) | Mr. Todd SAMPLE(타드 샘플)

Lecture  
3

2014년 9월 26일 (금) 2시 | 부경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Mr. Alok ROY(알록 로이) | Mr. Ryan CASSIDY(라이언 캐시디)

Lecture  
4

2014년 10월 2일 (목) 2시 |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 대강당  
Mr. Won-Joo SUH(서원주) | Mr. David LEE(데이비드 리)

Mr. Thomas HWANG | 황용택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Thomas Hwang moved to United States in 1978 and joined the U.S. Army. After his honorable discharge from the U.S. Army, he joined the U.S Postal Service in 1981. He continued to be promoted and worked as a Senior Business Solutions Specialist from 2009. (As a Korean immigrant, he has reached the highest position among others who moved to the United States.) He retired from the U.S. Government in 2012. That was his 35th year of working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Now, he resides in Haeundae to teach English at Haeundae Library as a volunteer service.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는 5살에 미군기지에서 살았던 인연을 기회로 197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미육군에 지원입대했고 4년 후 미국 연방우정국에 말단 창구직으로 취직을 했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한국인 최초 마케팅 팀장까지 올라 많은 직원들에게 열정의 전도사로 귀감이 되었으며, 35년간의 공직생활 후 은퇴해 지금은 해운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민의 영어교육을 맡고 있다.

Life Lesson Begins from Changing Yourself

How do you position yourself in this world? He says one needs to build and develop his or her own foundation and do the right thing. However, he advises many young university students to be optimistic rather than pessimistic because you cannot change the world, but can only change yourself.

삶을 바꾸고 싶다면, 너 자신부터 변화하라

‘맨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처럼 돈도, 영어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육군과 연방 우정국이라는 미정부기관에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현재 취업과 스펙을 위해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과 나누고자 한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그가 제시하는 글로벌리더가 되는 새로운 방법, ‘코리아 드림’이 가능한 이유를 함께 들여보자.

Mr. Leo MENDOZA | 리오 멘도자



“작은 결심만 한다면,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Leo Mendoza is currently a professor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ide from teaching, he also runs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Busan Abandoned Pet Sanctuary since 2008. It is a privately run independent sanctuary that takes care of homeless animals until they are placed in a forever home. He strives to run BAPS by western standards, providing true quality of life for the dogs along with full vaccinations and medical care, in hope to become a model for dog sheltering in Korea.

켄터키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심리학을 복수전공한 리오 멘도자는 전 CNN 리포터 출신이다. 그런 그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이다. 2008년 그는 버려진 개들을 위해 사비를 들여 낯선 타국의 도시에 부산 유기견 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와 그의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백여 마리의 개가 구조되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현재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15마리의 견공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

The Star Thrower

Loren Eiseley wrote a story in 1969 that has been retold many times in many different ways. It is basically about a man who was walking on a beach after a storm and he finds thousands of starfish stranded on the shore, surely about to die away from the ocean. He goes and starts picking up one starfish and throws it as far as he can back into the ocean. He keeps doing this for a while. Another man saw him and came and said: you are wasting your time, you will never save all of them, you are not going to make a difference. The thrower picked up another star fish, sent it to the ocean and said: I made a difference to THAT one. My story is of THAT one. I will share about a handful of dogs who have come into my path and been saved. The lesson is simple: anyone can make a difference if they care enough to commit to changing the world one issue at a time. No matter if you care about dogs, cats, or anything, your commitment and dedication CAN make a difference.

불가사리 구하기

1969년 로렌에즐리는 해변으로 떠밀려온 수많은 불가사리를 구조하기 위해 하나, 하나 바다로 던져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그 행동이 세상에 변화를 부른 것처럼 리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유기견 쉼터에 온 많은 개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결과 부산유기견쉼터(BAPS)에서 구한 작은 생명들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전세계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BAPS의 활동을 통해 그는 조그만 단체가 시작한 작은 결심이 만들어낸 행동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Mr. Herve STUDER | 에흐베 스투델



“나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라”

Herve Studer was born and raised in France. He worked in a foreign consulting company before he visited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in 2002. He studied in Yonsei University for a year, and went back to France. In March, 2009, he revisited Korea to work in Sanofi-Aventis Korea.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general manager of the company, which is the biggest pharmaceutical company in France and the 3<sup>rd</sup> largest in the world. Utilizing his fluency in Korean, English, French, and German, he is contributing to the global connection of the world.

에흐베 스투델은 1978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고 2002년에 연세대 교환 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세계 3대 제약 회사 중 하나인 다국적 기업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상무로 한국땅에 동지를 틀었다. 그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4개 국어에 능통하고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을 인정 받으며 글로벌 커넥션에 이바지하고 있다.

What We Ask for in a Global Leader

As a general manager of Sanofi-Aventis, he will provide us the guide to become a global leader. Based on his experiences in both French and Korean companies, he approaches the topic in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the differences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he attitudes of the employees. Simultaneously, he provides advice on interview skills. As a person who has been on an employee and an employer, he suggests tips for a successful interview. Also, he shares an idea of what companies expect for college graduates. His detailed guide will give you an idea of what you should prepare for to take a part in this competitive world

글로벌 리더에게 원하는 것

에흐베 스투델씨는 다국적 기업 임원의 입장에서 회사가 기대하는 ‘글로벌리더’는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는 프랑스와 한국기업 양쪽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의 방향성과 자세에 대해 조언하고자 한다. 동시에 그는 다양한 구직 또는 구인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 시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인터뷰 시 임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과 답변들 그리고 갓 졸업한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기업이 바라는 점들도 함께 짚어나갈 예정이다.

Mr. Todd SAMPLE | 타드 샘플



“남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라! 기회는 거기에 있다!”

Todd Sample is a 19-year resident of Korea originally from Pennsylvania in the United States. After starting his career in Korea as an English teacher, Todd transitioned into the business sector in 2006 when he was hired as an executive consultant at KOTRA, Korea's 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where he worked a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public relations strategy specialist until mid-2010. Upon leaving KOTRA, Todd was hired as the first ever foreign employee at national power corporation KEPCO, where he worked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department until February 2014. It was at this time that Todd decided to make a sharp turn in his career direction in Korea by pursuing a long-held dream and establishing “Well Dressed”, Korea's only foreign operated tailor shop, where he currently serves as president. He is also a regular columnist for the Wall Street Journal, Money Today newspaper and the Korea Times, writing on subjects ranging from Korean corporate culture to men's style.

타드 샘플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태생으로 한국에 19년간 거주중이다. 여느 외국인처럼 ‘영어 선생님’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삶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로 2006년에 KOTRA, 한국전력 등에서 외국인 최초 투자유치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담당이사로 활동했다. 2014년 2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서초동에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Well Dressed’라는 맞춤형 양장점을 열었다. 현재 그는 ‘Well Dressed’ 대표직 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등에서 칼럼리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Korea: Land of Opportunity

In his lecture, he would like to encourage Busan's university students to look at and understand things and situations they encounter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find value where others don't. He would also like to discuss upon the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intangibles”. Value is often created not through ‘hardware’ which anyone can access, but thanks to the ‘software’ that only a few have access to.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가치를 찾아보라 말한다. “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랄까요. 만질 수 있는 것들은 흔히 ‘하드웨어’라 부르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지만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알아보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른 외국인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찾아내어, ‘소프트웨어’적인 성공을 이루어낸 그의 한국 정착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의 리더들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전해주고자 한다.

Mr. Alok ROY | 알록 로이



## “경쟁 속에 얻은 행복, 참된 것일까?”

Alok Kumar Roy came to Korea in 1980 as a student to do his PhD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til now, he is teaching various subjects on contemporary India in the Indian Studies Department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 last 25 years. He also delivers guest lectures on issues related to Korea, Multicultur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e gained Korean citizenship in 2011.

1980년에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위해 한국으로 온 알록 쿠마르 로이 교수는 현재까지 부산 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에서 2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2011년에 한국에 10만번째로 귀화해 한국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현재 인도출신 한국인으로서 국제관계나 다문화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Korea: My Galapagos

Korea is his Galapagos. He feels lucky to witness unfolding of an evolutionary process for last 35 years in fast-forward mode right before his eyes with amazing clarity. Today's Korea is a human creation and yet, it does not look artificial or fake. Korean people take pride in their linear history and they have also learned slowly to make space for other thoughts. The confidence they earned today is the result of gritty endeavor, great sacrifices and learning fast from past mistakes. Indeed, Korean people are restless as they tend to see the world in the process of continued competition. They have to prove to themselves all the time that they are efficient managers of time and responsibilities. But should it be at the cost of simple smiles and healthy happiness?

### 한국: 나의 갈라파고스

한국은 그의 갈라파고스다. 35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라고 그는 말한다. 현재의 한국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 결과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쟁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는 한국인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아름다운 미소와 건강한 행복을 잃으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Mr. Ryan CASSIDY | 라이언 캐시디



## “전통은 옛 것의 반대말이 아니다, 지켜나가야 하는 것”

Canadian citizen and long-time resident of South Korea, Ryan Cassidy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CIS). Majoring in history and applied linguistics, Ryan is currently a professor and student advisor for CIS students, helping to prepare students for overseas study. Outside of school, Ryan has taken an interest in a variety of Korean traditions including a martial art and more recently pansori, which he has been learning now for a little over five years. Though still very much a hobbyist, he has performed on numerous occasions and has drawn some media attention, as there are few foreigners who practice this particular style of music.

라이언 캐시디 교수는 캐나다 출신으로 역사학과 언어학을 공부했고 현재 한림대학교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조연자 역할도 겸하고 있다. 그는 무술과 같은 다양한 한국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5년 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판소리에 빠져 열심히 공부중이다. 그 스스로는 아직은 취미 활동이라고 말하지만,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으로서 공연장에서 다른 외국인들에게 우리 소리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는 문화 전도사이다.

### Dynamic Busan Dynamic Korea

The pace of change in Korea is sometimes hard to comprehend. The last 100 years of Korea's history have seen challenges and changes of an enormous scale. For those visiting Korea briefly, that is often difficult to perceive but quite obvious for those, like Professor Cassidy, who have lived in Korea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Change however can come with costs and as time passes and change continues, Korean traditions sometimes seem threatened. Though tradition and modernity are often viewed as mutually exclusive, drawing on his experience learning and performing pansori, Professor Cassidy will discuss the potential role of Korean tradition in Korea's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 다이나믹 부산, 다이나믹 코리아

최근 100년간 한국은 스케일을 가능할 수 없는 도전과 변화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그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 한국을 종종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캐시디 교수는 오랜 한국 생활 동안 그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다. 그는 이 변화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국문화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통과 현대는 흔히 반대의 의미로 쓰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전통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전통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Mr. Won-Joo SUH | 서원주



## 우리는 왜 박물관으로 가야하나?

Won-Joo Suh was born in 1969. He attended Yonsei University and majored in Education and Psychology. Then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and a PhD from the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From 2001 to 2009, he worked as a docent in the British museum while lecturing students in University of London. He came back to Korea and wrote two books: "Museum Education in Korea" and "Why Did Humankind Need Museums?". He has been working as a Citizen Ombudsman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urrently, he's the head of Children's Museum, The War Memorial of Korea.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박물관 천개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현실을 일깨워 준 지도교수님 말씀에 흥미를 가져 진로를 바꾸고 영국으로 갔다. 런던대학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한 그는 현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영박물관에서 도슨트로 근무하며 박물관 도록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런던대에서 8년간 강의를 했지만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 현재는 전쟁기념관에서 올 11월에 개관 예정인 세계 최초의 전쟁관련 어린이박물관 개관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 Museum Today: is it Dead or Alive?

Nowadays, Museums consist of touch screen and virtual reality features. Back then, these were only possible in the movies, but now it is all around us. Unlike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the two trending keywords were "Humanism" and "Classics". Museums would be the best place to find this fundamental knowledge that potentially guide us all through the fast changing society because a museum is where we collect, preserve, research, exhibit, and educate on human history. As a museum expert, he will discuss the necessity of visiting the museums more often. Additionally, he tells others how to move forward by learning from the past.

### 살아있는 박물관인가 죽어있는 박물관인가?

타치스크린, 가상현실 박물관 등 현재 우리 주변에는 영화 속에서만 가능했던 상상의 기술들이 상용화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변화와는 상반되게 새로이 대두된 트렌드는 바로 '인문학'과 '고전'이다. 이러한 추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오래 전부터 논해왔던 본질적인 지식을 탐구하여,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본다면 박물관은 그야말로 최고의 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증거들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이 바로 박물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더 자주 박물관을 가야하는 이유, 그곳에서 과거의 지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Mr. David LEE | 데이비드 리



## “앞으로 요구되는 진정한 스펙은 ‘창의력’이다.”

David Lee is a Korean-Canadian who founded Shakr in 2010, with the firm belief that video is the most powerful digital storytelling medium. Since then, David and his 15 member team, with offices in Seoul and San Francisco, have worked tirelessly to make great video possible for everyone. A long-time believer in the power of video, David previously launched Wetoku, powering premium video interview content for Technorati's State of the Blogosphere report from 2008 through 2010. His first exposure to entrepreneurship was in 1994, when he co-founded Avenir Internet Solutions. Avenir was an online platform that facilitated the e-barter exchange of excess inventory between large corporations such as GE and Siemens. In 1998, NASDAQ-listed ITEX Corporation acquired a majority stake in Avenir.

데이비드 리는 캐나다 교포 출신 사업가이다. 그는 1994년, '회사를 운영할만한 스펙이 아니다'라는 주위의 충고와 만류를 이겨내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후에 2010년에 셰이커미디어라는 회사를 창립했다. '비디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방식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를 포함한 15명의 임직원들은 서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회사에서 고객들을 위한 멋진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 Creative Economy : Beyond Government

The creative economy was happening before it became a government slogan. It is a world where creators are brought incredibly close to consumers, enabled by platforms like the Apple App Store, Kickstarter and Elance. It's a world that moves as fast as consumer needs and desires evolve, not at the pace of centralized decision makers at big companies. And it's a world that requires the youth of today to do more than pad resumes. Your path to success in the creative economy starts today.

### 창조 경제 : 정부를 넘어서다

사실 창조 경제는 우리 정부가 창조를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창조 경제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이 아니라 애플앱스토어, 킥스타터, 그리고 엘랑스 등의 단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매우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세계이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 경제는 전통적인 경영방식인 집중된 힘을 가진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운영되는 회사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성장하는 만큼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이러한 창조 경제에서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이력서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가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의 성공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 MEMO

(2014. 3. 31~)



시	분	월 ~ 금	토	일	분	시
06		Hello, Gugak! (A)				06
07	59	Morning Wave in Busan	Oldies Jukebox			07
08						
09		On the Road Busan	News Patrol Museum Stories in Busan	English Konglish	50	09
10	05		News	Cine Concerto		
11	55	Culture Dirary	World Music Station (A)		Culture Dirary	11
12	05 10	News (T) News	Music Land 905			12
13						13
14	05	News (T)	News (T)	News (T)	05	14
15	05 59	News Weather Report	The Steve Hetherly Show (T)		News (T) News (T)	05
16		Super K-Pop (A)			Kids News School of Rock	05
17	55	Culture Dirary			Culture Dirary	55
18	15	Prime News	Inside Out Busan		World Window	18
19		Let's Talk Busan (월)				19
20	05 59	News Weather Report	See the World		News (T) News (T)	05
21	05	World News	부산 화어지음			21
22	05	News	Midnight Rider		Mind's I	22
23					Weekly Review	23
00		Re:Play (T)				00
01						01
02		K-Poppim (A)				02
03						03
04		Catch the Wave (A)				04
05						05

\*  Busan e-FM  Local News (A) Arirang (T) TBS eFM